

| 권두언 |

경사노위 2기 체제의 순항을 기대하며

최근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 및 새로운 위원회 개편 등과 맞물려 지난 2년간의 시기를 1기로,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출범할 위원회를 2기 체제로 부르기도 한다. 사실상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체제 속에서 이러한 시기구분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흔히 역사학에서 시기구분이 이미 가치판단을 전제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구분도 더 넓은 역사적 시계 속에서는 또 다르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시기구분이 달라질 수 있음은 그 역사적 평가, 즉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뜻할 것이다.

사실 지난 1기 경사노위 체제의 의미는 단순히 미조직 취약계층을 대변하기 위한 계층위원의 설치만이 아닌 촛불정국이라는 비상한 역사적 국면에서 탄생한 사회적 대화의 기대 등 매우 포괄적이고 복잡하다. 단기적 국면에서만 보면 탄력근로 합의를 둘러싼 여러 파행들 등으로 피상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1기 체제에서 진행된 참여 주체의 동학, ILO 및 국민연금 등 묵직한 논의 의제들과 함께 한국의 노동정치가 고도로 활성화된 시기였다는 점에서 다양한 해석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1기 체제를 역사 속으로 보내면서 경사노위를 둘러싼 한국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평가들이 단기적 국면만이 아닌 장기적 시계를 염두에 둔 긴 호흡 속에서의 평가들로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그것이야말로 지난 1기 체제의 다양한 노력들이 향후 긍정적인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할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작년 7월 노사정대표자 회의 체제에서 발족했던 4개의 의제별위원회가 논의시한 1년의 활동을 마치고 2년차 논의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듯이 1년 동안 진행된 한



이덕재
본지 편집위원장

국의 사회적 대화는 결코 순탄치 못했다. 4개 의제별위원회의 논의연장 등을 위한 본위원회 개최가 금년 2월부터 쟁점화된 탄력근로 합의에 대한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함에 따라 잇따라 무산되면서 과도 국면 하의 경사노위 6인 대표자회의가 가동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이처럼 경사노위 6인 대표자회의의 경과와 관련한 내용과 각 의제별 위원회의 지난 1년 동안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2년 차 논의 과제들을 살펴보았다.

한편,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도 “격차해소와 일자리 확대,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의 <사회적 대화 대담>이 실렸다. 지난 호가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문제에 집중하였다면 이번 호에서는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신수정 전문위원의 사회 속에 패널로 김영미 교수(연세대 사회학과), 오건호 위원장(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윤홍식 교수(인하대 사회복지학과), 이덕재 수석전문위원(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 참석한 가운데 흥미로우면서 풍부한 논의들이 진행되었다.

이번 호 <사회적 대화 논단>은 “근로자대표제도”를 다루었다. 이번 호 편집위원들은 국가 수준의 사회적 대화 외에 기업 수준의 현장 단위에서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근로자대표제도 문제를 다루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논단은 세 편의 원고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선 신수정 전문위원이 현행 근로자대표제도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어 김기선 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이 근로자대표제도의 본질적 의미와 함께 10% 수준에 머물고 있는 노조조직률, 특히 0.2%에 지나

지 않는 30명 미만 사업장의 취약한 노조조직률 등 허약한 조건들을 강조하였으며 이승욱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 근로자대표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을 하였다.

또한, 시리즈로 진행되어 왔던 <사회적 대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에서는 시민사회편을 다루었다. 주로 시민단체가 전하고자 하는 사회적 대화의 해법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손영우 전문위원의 사회와 함께 패널로는 권오인 경제정책국장(경실련 재벌개혁본부), 박준우 사무처장(함께하는 시민행동), 이승은 부위원장(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이 참여하였다.

<사회적 대화 현장>은 임지순 사무금융우분투자재단 사무국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실고 있다. 우분투자재단이 국제연대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인 베트남 푸엔 지역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건설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베트남과 우리나라와의 여러 관계들을 고려할 때 이러한 국제연대 활동의 의미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한편, 이번 호 <전문위원 정책스케치>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 어디까지 와 있나-현안과 보호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강금봉 전문위원이 맡았다. 이 글에서는 우선 디지털 플랫폼 및 플랫폼 노동의 개념과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디지털 플랫폼 노동을 둘러싼 주요 논쟁들을 살펴보고 있다. 플랫폼 노동이 갖는 긍정적인 면 외에 거래비용의 축소, 사회보호의 사

각지대 발생 등 부정적인 면을 두루 살펴보면서 디지털 플랫폼 노동종사자들을 위한 대안적 보호체계에 관한 논의들을 소개하고 있다. 끝으로 디지털 관련한 논의를 다루고 있는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에서 1기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2기 논의의 결의를 다지는 “디지털플랫폼 노동 관련 논의 방향과 의제에 관한 1기 위원회 제안문”을 제시하면서 관련 위원회의 향후 활동 방향성을 엿보게 한다.

끝으로 이번 호에서도 <사회적 대화 국제 동향>에서는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의 사회적 대화와 관련한 흥미로운 동향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프랑스의 동향인데 우선 프랑스 의회가 6월 18일 이동 및 방향성 법(LOM)을 채택하여 플랫폼 노동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면서 구체적인 보호 수준을 제고한 점이 인상적이다. 그럼에도 실업급여 개혁 논란 부분 역시 눈에 띄는데 즉 1/4분기에 사회적 파트너들이 실업급여 개혁 협상 타결에 실패하자, 정부가 1982년 이래 처음으로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고 이 안에 대해 노-사가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우리에게겐 부럽기 그지없는 헌법기구로서 경제사회환경노동위원회라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갖춘 프랑스에서도 여전히 사회적 대화가 쉽지 않은 문제라는 한 단면을 엿보게 하는 것이다.

이번 격월간 《사회적대화》(7-8월호)가 풍성하게 발간될 수 있도록 귀중한 원고를 주신 필자들, 귀중한 말씀들을 해주신 각종 좌담의 패널 및 제작에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사의를 표한다.